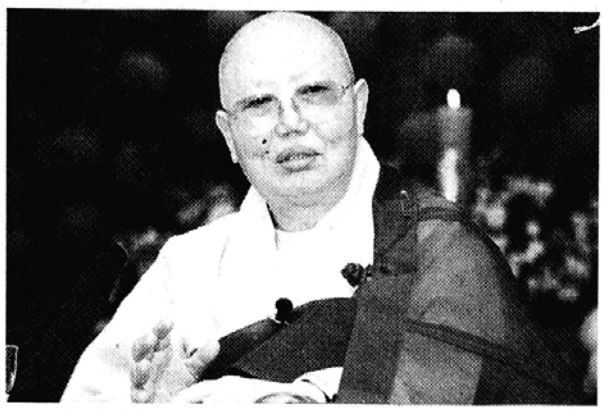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은 31일 독일 라팅겐시 시민문화회관에서 대법회를 갖는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이 주최하는 이번 법회에는 주독대사를 비롯 독일의 저명인사들과 교민등 3천여명이 참석한다.

대행스님 31일 독일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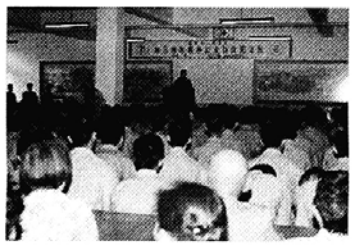
라팅겐시 시민회관서… '苦서 벗어나는 길' 법문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이 31일 오후 4시 독일 뒤셀도르프 근교 라팅겐시 시민문화회관에서 대법회를 갖는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스님)이 주최하고 주독 한국대사관과 명예영사관이 후원해 법회전체가 독일어로 동시통역되는 이번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법문한다. 20세기 다지막 해에 갖는 이번 독일법회에서 대행스님은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급격한 시대변화 사회변화를 겪는 불안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서구인들에게 내면속의 참나를 발견하여 고에서 벗어나 활기있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독일에 사는 교포와 현지인 등 3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법회는 특히 이기주 주독대사, 송영식 주 네덜란드 대사, 헬무트 글루브레히트박사(하노버대학 교수), 옌스 독일행정법원장, 라디쉬 라팅겐시 부시장 등 독일의 저명한 인사와 학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대행스님 초청법회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케 한다. 이번 법회는 법문전에 한국전통사찰의 예불의식과 대행스님의 전법행장을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이 있으며 한국의 전통 다도의 식도 시연된다. 대행스님의 법문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도 가지며 1백여명의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임의 소식' 등 찬불가를 음성공양한다.

이경숙 기자

日 남장원 스님·신도 1백여명 부산 소년원 방문 용기 북돋아



'가깝고도 먼나라'라는 수식어를 과감히 던져버리게 하는 뜻깊은 방문이 14일 부산에서 있었다.

97년 삼중스님과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후쿠오카의 남장원 주지 하야시 가쿠스님을 비롯 신도 1백여명이 오륜대직업전문학교(부산소년원)를 방문한 것〈사진〉. 일본의 사찰에서 한국의 소년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원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방문행사에서 하야시스님은 원생들을 위한 축구공, 문구, 도서구입금 등을 전달했다. 하야시스님은 법문을 통해 "잠깐의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며 "시련을 이겨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찾아, 더 깊은 삶의 뿌리를 내리는 한국의 청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재소자 교화에 큰 몫을 담당하는 하야시스님은 이번 방한에서 한일 교도소 상호방문, 소년원 설교 초청 등 지속적인 교류와 재소자 교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이며 세계최대 석가여래 청동와불이 모셔진 유서깊은 남장원의 친선방문단은 불국사, 석굴암, 범어사를 둘러보고 14일 소년원 방문을 끝으로 출국했다.

천미희 기자

속초 반야요양원 인천 피안복지관

노인 무료 안식처로 '인기'

급식·진료·이동목욕·장례서비스등 다양

활발한 복지활동을 통해 불교복지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의 두 복지단체가 있어 화제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신흥사 복지원인 속초 반야노인요양원과 인천 피안사회복지관이 그 곳. 이달 말로 개원 1주년을 맞는 반야노인요양원(원장 홍구)은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도내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실버타운으로 정착했다.

반야노인요양원은 생활실, 물리치료실, 목욕실 등 현대시설을 갖추고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항시 대기하며 이곳에 입소해 있는 30여명의 노인은 물론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들을 돌봐주고 있다.

특히 요양원은 영구차까지 갖춰 요양원 노인들이 임종하면 원장인 홍구스님이 손수 불교장례의식을 치뤄주고 49재까지 지내주는 등 노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속초 반야노인 요양원은 다양한 활동을 펼쳐 실버타운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 것은 5백여 후원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수녀를 포함한 10여명의 타종교 자원봉사자도 참여해 종교의 벽을 허물고 있다.

인천 남구 승의동에 위치한 피안사회복지관은 출발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곳. 관장 고구목씨(여) 등 10여명의 여성불자가 재원을 출연해 마련된 피안복지관은 지난 10일 개원3주년 기념식과 함께 이동목욕봉사차량 발대식을 갖고 무료로 지역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곳 역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역 불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가정과 결식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피안복지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적으로 2백여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이들은 대부분 불자들로 재정은 후원자들이 맡고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자들이 도맡는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옹진군수 '심청각 사태' 사과

면장징계 입장 안밝혀…불교계 문책 재촉구

백령면장의 심청각 불교행사 방해사건과 관련 옹진군수가 불교계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 인천종무원장 대은스님과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위원장 현진·원혜)는 14일 조건호 옹진군수를 공식면담하고 백령면장의 징계조치와 심청각의 다양한 행사 장려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건호 군수는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려 백배사죄드린다. 운영규정을 만들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백령면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불교계 대표들은 이어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실을 찾아가 관련자의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범불교 종단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 옹진군 김순호 문화관광과장은 12일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해 종교편향대책위원장 현진스님(포교부장)을 면담하고 이번 일을 친절행정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강성구 신부 백담사 강연

"인간은 만남을 통해 생활"

백담사(회주 오현)는 7일 원통고 학생 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성구신부(속초 청호동성당)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4월 10일 속초 청호동성당에서 설법한 오현스님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강신부는 '만남'을 주제로 "인간은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친구 부부 등 각종 만남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교와 천주교의 가르침인 인간의 참된 삶과 진실 도덕등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해탈서원' 다라니 사경

광주정토선원 20일부터

광주 정토선원(주지 도성)은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범서다라니 사경회를 연다. 90일간 주지 도성스님이 범서 〈신묘장구대다라니〉〈불정존승 다라니〉 등에서 직접 체본하여 가정으로 우편발송하는 형태로 사경하게 된다. 도성스님은 "범서다라니 사경공덕으로 온누리 생명들의 몸과 마음의 허물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불도를 깨닫고 윤회의 생사고해를 벗어나 행복의 땅,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경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도성스님은 전국범서다라니사경회를 발족하고 범서사경에 관심있는 사경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62-528-0108.

김원우 기자

청소년 봉사프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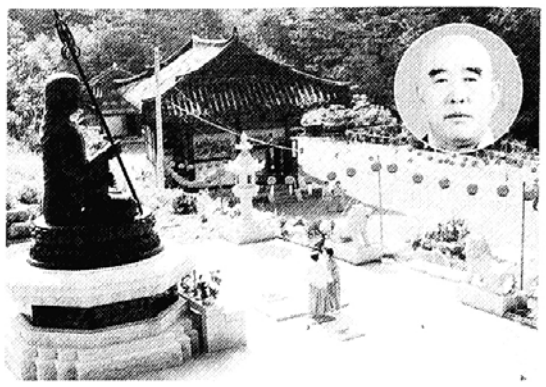
부산신도회 표충사서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교와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부산불교신도회의 흙사랑 자원봉사단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내 중,고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밀양 표충사 일대와 산내 영농조합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천미희 기자

우리절 불사 화천 보은사



◇화천 보은사는 6·25전몰장병과 터키군 영가를 위한 천도불상을 조성했다. 원내는 주지 정수스님.

순국원혼 천도도량 만든다

청동지장상 봉안위해 신도 밤낮 기도

6.25 한국전쟁당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화천군 사창리. 깊은 전쟁의 상흔만큼 원혼의 애절함도 깊게 서려있다는 이곳에 자리잡은 지장도량 보은사.

난리가 터지기 전에는 약수가 유명해 약사기도터로 더 잘 알려졌던 이 도량이 2년전 현재의 주지 정수스님이 소임을 맡으면서 명실상부한 지장도량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군 사단병력과 터키군이 함께 주둔하다 전몰한 그 유명한 사창전투의 현장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접고 오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열사들의 원혼을 천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교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입니다."

주지 정수스님은 법당 위로 도량 한 중심에 야외 청동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기로 원을 세웠다. 2자반 크기의 석조 좌대를 받치고, 높이 11자의 좌불을 모시기로 한 것이다.

덜렁 법당과 눈비 가릴 정도의 요사 1채가 전부인 보은사는 일제대 창건한 이래 최대규모의 불사에 들어간 것이다.

강화 보문사 주지로 10년 살면서, 또 화계사 주지로 국제선원 건립 등 불사라면 이력이 난 정수스님이지만, 새로 주지를 맡아 착수한 불사여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번 불사가 지장보살 조성불사라 더 남다른 의미를 갖고 달려들었고, 신도들도 스님의 열의에 신심을 더욱 낼 수 있었다고 신도회 간부들은 입을 모았다. 불상이 모셔질때까지 지장기도 발원을 하고 낮 밤 가리지 않고 스님과 신도들의 기도가 계속돼, 이적을 체험하는 신도들의 경험도 늘어갔다. 특히 악한 인연 부정한 생각의 기운이 다가오면 물이 말라 지금까지 8번이나 말랐다고 전해지는 법당옆 약수터는 불사기간중 단 한번도 마르지 않아 약수물만 떠다 먹던 마을주민들도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고 한다.

이렇게 1년여 불사가 강행돼 마침내 지난해 8월, 1차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성대하게 마쳤다.

그러나 아직 주위 도량장엄에 드는 불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순국원혼들의 천도 기도도량이며 역사를 순화시키는 대작불사에 지장원력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0363-441-4449.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이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사청역, 조계사역,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단청불사·천일기도 七百日 전국 禪院長·祖室·方丈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재)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들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임은 自他가 공인하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시던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이 동·하안거 방함록에 전국선원 중 제일 먼저 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웃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寶님께 발원하며 24년 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善男善女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법어 三角山 普光寺 祖室 南山正日 大禪師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9년 음 6월 13일(양 7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화주단

신도회·운영위원회·합창단·108보리심회·선정회·청년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 02)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3년 음 6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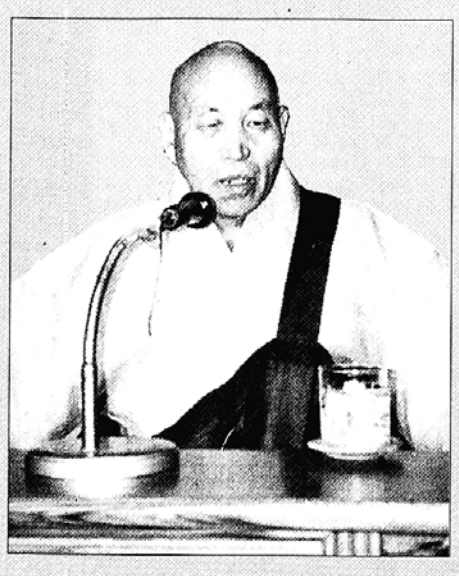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一柱門 建立을 위한 一人 一燈 萬人 萬燈
佛事 接受中입니다.

千日기도 七百日大法會

제8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三角山 普光寺 祖室 南山正日 大禪師



삼각산 보광사 조실 남산정일 대선사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⑥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三百日 전국선원장·조실·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說法會上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2차
초청법사 · 제1회 황익신 직지사 조실 진관응 대선사 1997. 7. 4(양 8. 3) 성만
· 제2회 법수선원 조실 이성수 대선사 1997. 11. 13(양 12. 12) 성만
· 제3회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이련행 대선사 1998. 2. 23(양 3. 21) 성만
· 제4회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법일보성 대선사 1998. 윤 5. 3(양 6. 26) 성만
· 제5회 화계사 조실 송산행원 대선사 1998. 8. 13(양 10. 3) 성만
· 제6회 전 조계종 종정 송서압 대종사 1998. 11. 23(양 1. 10) 성만
· 제7회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대선사 1999. 3. 3(양 4.18) 성만
⑧ 선학원 창건 사적비 세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⑨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이時代佛敎聖地 宣布法會

◆화 주 단
황자현심 손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애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 광 덕 이관음행
박선해일 김복덕성 윤보광심 민길상심 송 경 현 신 옥 순 김도월행 김마하연 유정혜성
송법성심 정선덕행 정본각성 이범왕자 이지혜장 고만덕성 이보원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신 도 회
명예회장 염무영원
고문 양보타원 이연화심 이 경 회 김명심행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장 이관음행
부회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무 신성지행 이범왕자
재무 손진여심 신원명심
감사 박선혜원
감사 권법연화
1지역회장 이반야행
2지역회장 유정혜성
3지역회장 최 복 식
4지역회장 황자재심
운영위원일동
합창단단장 유정혜성
총무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무 박보리성
선정회 회장 배 경 주
부회장 박보리성
총무 이 상 회
총무 최 은 섭
운영위원일동
청년회장 이 상 훈

약도
안국역에서 150m
선학원
3호선 안국역
경복궁 ← 안국동 로타리 → 창경궁
종로경찰서
종각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